

우리 낙농인들의 자세를 보면 자기이익과 무관한 일에는 남의 일인양 치부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의 권익단체인 낙우회, 도지회 그리고 협회가 있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회원수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될 때 우리 협회는 활기를 찾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쟁력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전국의 낙농가족 여러분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품질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길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우유생산 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우유생산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축적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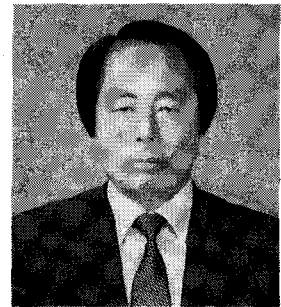
다음은 협회의 활성화이다.

그동안 우리 낙농인들의 자세를 보면 자기이익과 무관한 일에는 남의 일인양 치부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의 권익단체인 낙우회, 도지회 그리고 협회가 있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아직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이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삼형제가 낙농을 할 경우 그중 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회원수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될 때 우리협회는 활기를 찾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협회의 힘이, 곧 내가 살 수 있는 힘이다



박 재 호
본회이사. 해울목장

진부한 말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맹자(孟子)에 이런 말이 있다. 「세상에 도가 살아있을 때는 적은 덕은 큰 덕에 의해 부림을 받고, 큰 어짐이 작은 어짐을 다스리고, 도가 없으면 작은것은 큰 것에 약한것은 강한

것에 의해 부림을 받는다(天下有道, 小德力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고 하면서 순천자는 생존하고 하늘뜻을 어기는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已)고 결론짓고 있다.」

이제 UR협상타결로 치열한 무역전쟁이 전개될 이 시점에서, 도가 행해지는 천하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보면 약육강식하는 무도(無道)의 세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크게는 나라지키는 힘이 길러져야 할 것이며, 작게는 생업을 지키는 힘을 스스로 기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낙농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입장에서 강자가 되고 순천자가 되는 길은 어떤것일까요 생각해 본다. 두말할 나위없이 2만7천 낙농가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뭉쳐 낙농진흥법개정등 올바른 정책을 수립토록하고 우리가 생산한 우유는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고 판매하여, 외국산 유제품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뜻들은 사분오열 되고 있고 정책당국자들은 골치아픈 일들이 제풀에 없어지도록, 자연 도태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인데다 몇몇 뜻있는 낙농지도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부 무책임한 사이버 지도자들은 낙농과는 무관한 사업에 열을 올린다고 들리니 역천자를 자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작금의 분위기로 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해 본다. 기업목장들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에 성원목장의 경우와 같이 자체의 처리시설과 판매로 살아남을 것이다. 분유나 커드는 자유로이 수입가능하겠기에 유업체들은 집유에 유리한 큰 농가들만 선발 확보할 것이며, 협동조합에는 영세농가들로만 남게되고, 그나마도 참여지 못한 농가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불리한 여건과, 응집력의 취약성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조합들은 설자리를 잃게되어, 끝내는 이나라 낙농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말것이라고 한다면, 역천자는 망한다에 건강부회로 끌어 맞춘다고 할지 모르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협회 강성원회장께서 자체 처리장을 시설하고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는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해주고 있는가 하면, 협동조합이 낙농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이탈할 때에는 마음만 먹으면 몇사람의 낙농가들만으로도 조합법인을 만들어 이같은 소규모 시설을

낙농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입장에서 강자가 되고 순천자가 되는 길은 어떤것일까요 생각해 본다. 두말할 나위없이 2만7천 낙농가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뭉쳐 낙농진흥법개정등 올바른 정책을 수립토록하고 우리가 생산한 우유는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고 판매하여, 외국산 유제품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갖추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영세한 낙농농가 모두가 쉽사리 뛰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직은 제도적 뒷받침도 거의 없는 상태이니 더욱 그러한 것이다. 너무나 많은 시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낙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살이 모두를 포기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니 이웃 형제가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함은 순천자의 도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나마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시유만은 지킬 수 있다」는 정책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언동에 현혹되지 말고 적어도 이 나라에서 소비될 수 있는 모든 유제품은 우리가 생산할 원유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대응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각오가 여기에 이르고 우리의 단합된 힘이에 미칠 때 소위 선진국 낙농가가 갖추고 있는 정책적 중무장을 우리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협회의 힘이 곧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절박한 이때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